

시물라크라로 읽는 『율리시스』

강 미 선

I. 들어가며

『율리시스』(*Ulysses*)는 읽기에 어려운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 원인은 단순하게 말하면 독자들이 ‘저자가 사라진’ 작품에서 상징계에 군림하는 작가의 목소리만을 찾으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권위에 길든 독자의 습관에 조이스(James Joyce)는 반응하지 않는다. “교수들이 ‘수백 년’(for centuries) 동안 자신의 작품에 대해 논쟁하느라 바빠”(Ellmann 521) 거라는 조이스의 말에는 당시의 소설 기법이나 독자의 독서법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스며있다. 사실주의 소설에서 모더니즘 소설로 넘어가면서 독자들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시되었고 독자는 이제 어느 정도 저자의 의도를 찾으려는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그것이 모더니즘 서사 기법으로 ‘의식의 흐름’이 만들어 낸 토양이다. 그 토양 위에서 작품은 텍스트(text)가 된다. 더구나 『율리시스』의 후반부(15장, 18장)는 의식의 한계를 넘어 의식 바깥으로 향한다. 들뢰즈(Gilles Deleuze)를 인용하면 “언어의 외부가 아닌 언어의 바깥”(ECC Iv)으로 인식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바깥은 외재성이라는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바깥은 힘들의 관계, 또는 힘 자체와 관련된다”(로도위 372). 조이스가 이렇게 저자의 권위를 내려놓게 되자 독자는 혼돈의 세계에 빠진다. ‘사라진 저자’에 의해 독자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는 격이다. 『율리시스』의 난해함은 따라서 의식의 흐름을 넘어서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난입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말해야 한다. 재현될 수 없는 무의식은 환각 현상이나 망상 현상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기껏해야 “느껴지는”(Deleuze and Guattari, *AO* 18) 것인데 조이스는 그것을 재현하려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재현될 수 없는 것, 플라톤(Plato)에 의하면 모방의 최하위등급으로 치부되는 시물라크라를 조이스의 방식으로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의식의 흐름이 아닌 의식 바깥에 존재하는 시물라크라의 부상이 『율리시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들뢰즈의 해석을 통해 시물라크라가 인식되어 온 철학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그런 후에 『율리시스』를 통해 질서의 세계에 부합하는 부권의 회복, 아내의 ‘성’(sexuality), 그리고 동일성의 반복이 시물라크라의 부상과 어떻게 대치되는지 논증할 것이다. 그것과의 ‘공존 가능성’이 바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사유이기 때문이다.

II. 시물라크라의 부상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The Logic of Sense*)에서 “플라톤주의를 역행하는”(253) 것의 의미를 묻는다. 그때 시물라크라의 개념이 새롭게 창안된다. 들뢰즈에 의하면 플라톤주의는 원본인 ‘이데아’(Idea)에 근거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하고 결정한다. 이데아의 형상과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좋은 것이고 멀어질수록 나쁜 것이다. 잠시, 『율리시스』의 예를 들면 1904년 더블린의 지식인들은 실체인 말(馬)이 아니라, 말의 “본성”(whatness)인 “마성”(horseness)을 믿는다(*U* 9.84-5). 그들에게 말은 ‘마성’에

견줄 수 없는 저급한 복사본이다. 그들은 “경향의 흐름과 영겁을 숭배한다”(U 9.85). 디지 교장(Mr Deasy)이 인간의 세계와 ‘공존 불가능’한 초월자의 세계를 믿(U 2.380)는 것도 같은 문맥이다. 그러나 이데아와 달리 우리말로 ‘허상’이라고 옮길 수 있는 시물라크라라는 형태가 있는 사본도 아니고 원본과 유사성 자체가 없는 비존재로서, 등급이 매겨질 수 없는 “환영”(simulacra-phantasma)(LS 256)이다. 환영은 유사성이 아닌 ‘차이 자체’로 존재한다. 플라톤이 시인을 그의 이상 국가를 위해 추방하는 것도 상상력을 모방이 아닌 시물라크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어 좌표에 고정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것은 질서의 세계를 위해서 추방되어야 한다.

시물라크럼[시물라크라]은 관찰자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차원, 깊이 거리를 의미한다. 관찰자가 유사성의 인상을 체험하는 것은 시물라크럼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물라크럼은 그 자체 안에 변별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관찰자는 시물라크럼 자체의 한 부분을 이루며, 시물라크럼은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변형되고 이지러진다. 요컨대 시물라크럼 안에서 일종의 착란적인 생성, 무한한 생성이 일어난다. ... 동등한 것, 한계, 동일자나 유사한 것을 곧잘 지워버린다. ... 이 생성에 극한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에 동일자의 질서, 유사성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끝내 굴복하지 않은 것들은 바다 밑 동굴 속의 심연에 가두어버리는 것, 이것이 시물라크라에 대한 도상의 승리를 확보하려는 플라톤주의의 목표이다. (LS 258-59)¹⁾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플라톤주의를 역행하는” 것은 원본도 복사본도 아닌 “시물라크라를 부상하게 하고 도상과 복사물들 사이에서 시물라크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LS 262). 차이가 유일한 모델인 시물라크라의 부상은 동일자나 유사한 것이 아닌 차이를 생성한다. 다르게 말하면 재현 세계가 “바다의 동굴 속에 가둬놓은”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될 때 그것

1) 본고의 모든 한글 번역문은 번역본을 참고해 수정했으며 번역본이 없는 경우는 필자가 번역했음을 밝힌다.

의 권리는 긍정된다. 시물라크라를 부상시키는 것은 당연히 소수자의 문학과 연결되며 분석도 “개념이나 인물이 아니라 오로지 분자적 분산의 문맥 속에서 파악된 기계적 배치에 관여한다”(AO 323).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존재에 대한 질문은 들뢰즈와 과타리(Félix Guattari)의 말처럼 ‘저 높은 곳’(higher)에 있는 신비의 영역도 ‘이후’(afterward)에 출현하는 잠재된 아버지도 아니다. 실재하는 것의 현실화는 지금 여기에서 “무오이디푸스적 생산”(AO 128)이다. ‘욕망적 생산’이 바로 시물라크라를 부상시키는 ‘현행 요인’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탈코드화된 흐름’으로 데려간다. 들뢰즈는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실증한다.

녹색이 있다고 해보자. 물론 노란색과 파란색은 지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이것들의 지각이 작은 지각으로 되면서 사라진다면, 이것들은 녹색을 규정하는 차이적 관계(db/dy) 안으로 들어간다. (FLB 88)

계속해서 다른 두 색이 노란색이나 파란색을 규정하는 차이적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즉 규정적인 것은 언제나 미시적인 과정에 의존한다(FLB 88). 즉 실존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재(내재)하는 ‘그것’은 경험세계와 분리되지 않는 ‘미세 지각’ 또는 미분비(微分比)이다. 미세 지각이나 미분비는 의식의 부분이 아니라 의식적 지각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경험세계와 분리된 ‘저 너머’나 ‘이후’인 외생적(초월적) 기준으로 시물라크라의 실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내재적) 관계인 미분비의 관계로 즉 ‘보이는 것’의 원인이 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무한 소급해 나가는 방법으로 실증한다.

들뢰즈에게 존재의 본질은 이데아가 아니라 미분비가 분화하는 순간, 차이들, 미분들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특이점들이 튀어나오는 순간이다. 즉 존재는 변화하는 순간들의 반복에서 언제나 새롭게 부상한다. ‘보이는 세계’는 미분비의 결과로 무한히 소급되면서 ‘또 다른’ ‘더 작

은’ 미세 지각이 만나는 미분비의 결과물이라고 말해야 한다. ‘플라톤주의를 역행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사는 경험세계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주의가 바다의 심연 속에 가둬놓은 시뮬라크라를 경험세계 속에 공존할 수 있는 배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경험세계로 그것을 심연에서 끌어내어 “표면 위에서 뛰놀게 하고”(LS 5), 아버지를 향해 욕망을 소진하는 대신에 차이를 반복하는 영원회귀의 삶을 사는 것이다.

III. 『율리시스』에서 시뮬라크라의 부상

『율리시스』를 읽을 때 독자가 겪는 어려움 또는 ‘불편함’은 경험세계의 지식이 더는 유용하지 않고 그것대로 작품이 읽히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율리시스』는 ‘아빠-엄마-나’란 인물로 구성된 삼각형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 기계’가 아니다. 『율리시스』는 고장 난 기계로 “추상 기계”(abstract machine) (Deleuze and Guattari, *TP* 4)이다. 경험세계의 잣대로 측정되지 않는 질료와 낯선 서술 기법으로 짜인 『율리시스』는 경험세계에 혼돈을 초래하는 시뮬라크라를 부상하게 한다. ‘가족 삼각형’에 정초한 ‘사회 기계’의 반대 극에 있는 ‘욕망 기계’는 “그것이 작동할 때는 계속해서 고장 나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작동한다”(AO 31). ‘욕망 기계’는 역설적으로 고장 났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하는 기계이다. 따라서 고장 난 기계 위에 있는 스티븐(Stephen Dedalus)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성부는 자신이 그 자신의 성자이다”(U 9.863)라고 주장해서 파문당한 사벨리우스(Sabellius)를 인용하는 스티븐은 “... 아버지가 없어도 아들이 될 수 있다”(U 9.864-65)는 논지를 편다. 그것은 다시 멀리건(Mulligan)에 의해 “아들이 그 자신의 아버지이다”(U 9.875)라는 역설로 이어진다. 스티븐은 거세된 주체가 아니라 “그 자신의 주인”(U 1.636-37)으로 독신 기계이다. 들뢰즈와 과타리의 분열자는 정신 분석의 신경증자와 달리 ‘엄마-아빠’만을 소비하지 않는(AO 20) “잔여적 주체”(residual

subject)(AO 88)로 ‘독신 기계’이다. ‘독신 기계’는 ‘욕망 기계’로서 ‘강도 =0’인 층위에서 언제나 다시 시작한다. 그때마다 “그들이 모두 나이고 따라서 이게 바로 나다”(AO 21)라고 외친다. 따라서 이것은 나의 엄마이고 나의 아빠이다. 따라서 이게 바로 ‘나’다(AO 20)라고 외치지 않는다.

독신 기계는 스스로 고장 난 기계이고 고장 난 곳을 감추지 않는 예술가이다.

예술가는 대상의 주인이다. 그는 우리 앞에 부서지고 불타고 고장 난 대상을 놓고 그것을 욕망 기계의 체제로 바꾸고 고장은 욕망 기계가 작동하는 바로 그 방식의 일부이다; 예술가는 욕망 기계가 기술 기계 [사회 기계]들을 손상할 수 있도록 기술 기계들의 수만큼 편집증 기계들, 기적 기계들, 독신 기계들을 제시한다. (AO 32)

조이스가 1922년에 죽쇄에 간혀 있는 1904년 6월 16일을 현실화시키는 것과 스티븐이 10년 후에 『울리시스』란 ‘문학 기계’를 제시하는 것은 그들 둘 다 위에서 언급한 예술가의 징표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울리시스』를 고장 난 기계로 언급한 이유는 『울리시스』 안에 질서를 교란하는 시물라크라의 유령이 부상하고 있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이다. 『울리시스』 안에서 강력한 ‘사회 기계’인 가족 삼각형이 시물라크라의 부상으로 ‘욕망 기계’에 의해 어떻게 흔들리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가족 집합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잃어버린 욕망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족 삼각형’ 안에서 기생하는 ‘부권’과 ‘아내의 성,’ 그리고 ‘동일성의 반복’이란 작동 원리를 와해하여 “사회-역사적 장과 무의식 장을 분열증화한다”(AO 53). 그렇게 되면 부권은 “법적 허구”(legal fiction)(U 9.844)가 아닌 부성으로 ‘사랑’이 되고 아내의 성은 재생산이 아닌 “번식 없는 생식”(copulation without population!)(U 14.1422)이 되며 동일성의 반복은 “차이의 반복”(U 16.1525-26)이 된다. 즉 어머니와 동침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아들을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여 아들에게는 그것 말고 다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내의 성’은 재생산을 위해서만 소비되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의 법은 이름뿐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가족 삼각형을 ‘분열증화’하는 것이다.

아들인 스티븐은 금지된 것, 즉 어머니와의 동침을 욕망하지 않는다. 대신에 어머니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랑”(U 9.429-30), ‘그것’을 욕망한다. 온종일 외로움을 느끼는 블룸(Leopold Bloom)의 아내인 몰리(Molly)는 자신이 자신에게 부친 편지를 받는다(U 18.698-99). 블룸이 몰리의 밀회를 막지 않는 것도 죽은 아들을 생각하는 것도 잃어버린 그것, 스티븐이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독자도 이미 현실화된 것에 리비도(libido)를 모두 소비하지 않을 때 ‘욕망 기계’로 거듭나고 ‘지금 여기’에서 ‘사랑’을 향유한다.

1. 부권이 아닌 사랑

스티븐은 『율리시스』의 처음 세 장에서 블룸은 네 번째 장에서 각각 따로 등장한다. 블룸과 스티븐의 외적 차이인 “나이, 인종, 신앙”(U 17.403)을 생각하면 그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독자는 블룸과 스티븐이 어떻게든 만날 것이며 그것이 또한 대단원이 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독자의 관성이다. 17장에서 그들은 독자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서로 마주 앉는다. 그들이 만날 때 독자는 또 대단한 무엇이 발생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스티븐에게는 블룸이 정신적인 아버지가 되고 블룸에게는 스티븐이 죽은 아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읽는 것은 ‘사회 기계’가 충만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고장 난 기계인 『율리시스』는 사회적 장을 가득 채우는 금지된 욕망이 아닌 ‘순수 욕망’을 발산한다. 스티븐은 아버지로부터 거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블룸은 아버지의 법을 물려줄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1장에서 헤인즈(Haines)는 성부와 성자라는 신학적 해석에 관심을 보

이며 “아버지에게 죄를 용서받으려 애를 쓰는 아들”(U 1.577-78)에 대해서 말한다. 기독교에서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는 자본주의 구성물인 핵가족으로 옮겨 오면서 ‘아버지의 법’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는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기독교에서 아버지와 가족 삼각형의 아버지는 실체가 아닌 초월적 존재이다.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지만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못하는 헤인즈와 달리 멀리건은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라 단지] 새이다”(U 1.585)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스티븐의 동생인 부디(Buddy)는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는 “하늘에 있지 않은”(U 10.291) 아버지를 언급하고 스티븐은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식사 전이 아닌 “식사 후에 매일 3번씩 듣는다”(U 1.610). 멀리건에게 예수(Jesus)가 더는 초월적 존재로 숭앙받지 못한다면 부디나 스티븐에게는 어떤 아버지도 ‘아버지의 법’으로 군림하지 못한다. 스티븐에게 부권은 “법적 허구”이고 “필요악”(U 9.828)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것은 부권이 아니라 “순간간에 일어나는 맹목적 발정”(U 9.859)이다. 리치(Richie Goulding)의 사랑을 받는 딸, 크리스시(Crissie)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만(U 6.52-3), 아들인 월터(Walter)는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거세된 대상이다.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복종적인 사촌 월터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된 ‘부권’은 초월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강력한 ‘사회 기계’이다.

‘동일 실체론’(consubstantiality)을 믿을 수 없지만 거세된 헤인즈는 가족 삼각형의 틀을 흔드는 진동을 견딜 수 없어 밤에 악몽을 꾸다. 반면에 스티븐은 혼자서 해변을 걸으면서 자신을 질책하듯 요구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만(U 3.62-69), 그에게 부권은 부성이 없는 ‘법적 허구’로 ‘필요악’일 뿐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목소리와 눈을 닦았다”(U 3.45-46)라고 말하는 스티븐의 사유는 진화가 아니라 역행적이다. 스티븐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삼각형의 한 각인 아들의 역할에서 빠져나온다. 스티븐은 “부친을 찾으려는 야벳(Japhet)”(U 1.561)이 아니다. 스티븐은 “스스로가 부친의 유령이 되어”(U 1.556) 광인이 되는 햄릿(Hamlet)도 아

니다. 아버지의 유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기를 보이는(U 14.1033-34) 헤인즈도 아니다. 마텔로 탑(Martello tower)에서 햄릿의 엘지노어(Elsinore)를 연상하(U 1.566-68)는 것은 헤인즈이지 스티븐이 아니다. 스티븐은 헤인즈의 광기를 피해 탑을 빠져나온다. 억압된 욕망은 아버지의 법과 단절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한 거세를 두려워하는 헤인즈에게서 광기로 분출된다. 멀리건은 스티븐을 “정신병”(g.p.i.)(U 1.128)에 걸린 임상 환자로 몰아가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스티븐은 “불운도 마다하지 않으며”(U 16.253) “작은 기쁨으로 분열증화의 과정을 겪는다”(AO 113). 스티븐은 헤인즈와 같은 임상 존재로서의 분열자가 아니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분열자를 오이디푸스(Oedipus)로 만들지 말고 신경증자를 “분열증화하라”(AO 83)고 말한다. 사회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에 욕망 기계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자. 스티븐에 의하면 “교회는 간교한 이탈리아의 지성이 유럽 대중에게 내던진 마돈나 상 위에서 확고하게 건립되지 않았다”(U 9.839-40). 스티븐은 더블린에 아버지란 동일자를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위에 건립된 신비성 위에서”(U 9.842) “삶에서 유일한 진실”(U 2.143), 그것을 찾는다. 욕망 기계는 ‘사회적 생산’의 표면 위에 ‘욕망적 생산’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법적 허구’의 자리로 내몰려 이름뿐인 아버지는 그의 권리인 ‘삶’을 찾아야 한다.

블룸이 어떤 아버지인지 살펴보자. 6장에서 블룸은 묘지로 가는 마차 안에서 샌디마운트 해변(Sandymount strand)을 빠져나오는 사이먼(Simon)의 상속권자인 스티븐을 본다. 블룸은 온종일 죽은 아들인 루디(Rudy)를 떠올리면서 그의 성장 과정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을 아쉬워한다. 물론 블룸은 딸인 밀리(Milly)에게 충분한 사랑을 준다. 블룸은 ‘아버지의 법’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것에 불만이 없다. 아들이 없는 블룸의 가족 삼각형은 흔들리고 있지만, 블룸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 몰리도 알고 있듯이 블룸은 더는 아이를 생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룸이 몰리와 ‘성적 관계’를 피하는 것은 사회적 억압 아래 작동하는 “3+1”이 아니라 “4개

의 모서리 또는 그 이상”(4+n)을 함축하는 열린 사회장에 자신을 여는(AO 96) 무의식이다. “허술하게 자신을 담은 ... 삼각형에서 빠져나가는 욕망의 흐름”(AO 96)을 블룸은 “막을 수 없다”(U 4.447-49). 그것은 “삶의 흐름”(U 5.563)이기 때문이다.

블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U 6.329) 15장에서 블룸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듯하다. 환영으로 나타난 루디는 스티븐의 어머니나 블룸의 아버지와 달리 블룸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루디는 위에 언급된 환영들과 달리 깔끔한 용모를 하고 있으며 자족적인 모습이다. 루디의 죽음은 여러 학자에 의해서 스티븐을 통해 잃어버린 아들을 대체하는 모티프(motif)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빗장이 풀어진 삼각형을 다시 옥죄는 해석이다. ‘사회적 생산’은 “천국의 팔에서 안정을 찾고”(U 5.367) “역사의 악몽에서 깨어나”(U 2.377)지 않는 포획된 체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삼각형은 그 안에서 탈코드화된 욕망을 흐르게 하지만 그것도 재영토화가 전제된 흐름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을 대체하지도 않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도 않는 블룸의 ‘욕망적 생산’은 사회적 생산에도 그리고 전제된 재영토화의 흐름에도 포획되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은 가족 삼각형을 진동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삼각형 안으로 투사한다. 블룸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에 포획되지 않는 삶을 산다.

블룸이 아들의 환영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블룸은 아들의 환영을 마주한 이후, 자신도 알 수 없는 반-이성적인 행동을 한다. 블룸은 오로지 술 취한 스티븐을 돌보기 위해서 스티븐을 쫓아 사창가까지 따라가고 급기야는 아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스티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블룸이 스티븐에게 베푼 배려는 동성애라 불리는 것(U 9.1209-10)에도 꽤넘치 않는 ‘사랑’이다. 블룸의 배려는 관념적 사랑이 아닌 잠재적인 것, 그것의 현실화이다. 스티븐이 생각하는 신(God), “그 단어에는 하나의 의미만 있다”(U 1.614). 블룸에게도 사랑의 의미는 오직 하나이다. 블룸은 수나사(bolt)에 의해 꼭 죄어진 그 삼각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블룸과 스티븐의 만남이 가족 삼각형으로 복원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블룸이

루디를 대체하는 아들을 찾는다는 해석은 ‘아들의 환영’을 기호로 읽어내지 못하는 사유이다. 더욱이 블룸은 보일런(Boylan)을 대체할 물리의 연인으로 스티븐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 삼각형을 조이고 있는 암나사(nut)도 완전히 풀어진다. 상징계의 일원인 블룸이 부권을 포기하는 것은 죽음과 맞서야 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블룸은 “이 삶에서 살아남을 것이다”(U 6.1004).

그러나 블룸이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한 이후로 11년이나 흘렸지만, 블룸은 “통조림 고기”가 없으면 완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광고에 약간의 동요를 느꼈다.

What is home without

Plumtree's Potted Meat?

Incomplete.

With it an abode of bliss. (U 5.144-47)

블룸은 오전에 스티븐이 읽었던 광고의 문구를 오후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데이비 번 주점(Davy Byrne's)에서 불현듯 다시 떠올린다. 블룸은 광고를 부고란 바로 아래 게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U 8.743-44) 그 광고에 괜한 신경을 쓴다. 통조림 고기(potted meat)는 성적 관계를 의미하기(Gifford and Seidman 87) 때문에 그 광고에 의하면 통조림 고기가 없는 가정은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번식도 생식도 하지 않는 블룸의 가정은 완전하지 않다. 광고가 증명하듯 지금 이른 새벽에 블룸의 가정에 있는 통조림통은 비어있다(U 17.304). 그런데 이제 블룸은 그 광고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블룸은 보일런이 침대에 남긴 그것의 부스러기를 발견하고 그가 왔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만 무관심해 보인다. 블룸이 15장에서 미소짓는 아들의 환영을 본 후, 그리고 16장에서 스티븐을 통해 부권이 아닌 사랑을 어떤 ‘매개’도 없이 감각 한 후에 느끼는 것은 “평정심”(U 17.2177)이다. 번식하지 않는 블룸의 가족 삼각형은 이제 ‘엄마-아빠-아들’이라는 세 각으로 닫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을 추가하여 4가 될 것이

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각을 추가할 것이다. 들뢰즈와 과타리가 욕망을 가족 삼각형 안에 가두는 것을 비판하면서 사유한 “4+n”이 의미하는 바이다. 텅 빈 통조림통은 결핍이 아니라 생성의 욕망으로 채워진다. 블룸은 보일런에게 열매를 빼앗겼지만, 그는 생성에 필요한 씨(plumstones)를 가지고 있다(U 13.1098-99). 그것은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며 기관 없는 신체, 강도=0에서 다시 시작하는 생성으로 도래할 미래이다. 생성의 씨는 근원적 원인을 품고 있지 않으며 그것의 부동의 모터는 “삶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사랑이다.

성적 에너지는 번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성은 오이디푸스 침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넓은 곳을 꿈꾸고 기성 질서 속에 저장되지 않은 낯선 흐름을 흐르게 한다”(AO 115). 따라서 블룸이 범을 물려줄 아들을 찾고 있다는 주제로 『율리시스』는 복귀하지 않는다. 블룸과 스티븐의 만남은 서로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주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전통적 글쓰기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블룸과 스티븐은 혈연관계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결연 관계’(U 17.1580-81)로 맺어진다. 블룸의 삼각형은 고장 났고, 고장 난 채로 작동하는 ‘욕망 기계’인 블룸은 ‘기관 없는 신체’와 연결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블룸의 반-이성적 친절은 삼각형 안에 가둘 수 없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일 뿐 고장 난 삼각형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반-이성은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랑”(U 9.659)인 잠재적인 것과 조우이다. 블룸은 이미 떠나온 세계로 복귀하지 않는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더는 그들을 “이미 도망쳐 나온 곳으로 되돌리지 말라”(AO 23)고 말한다. “분열자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들이 정체성이 분열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떠나온 그곳으로 불러 들여질 때이다”(AO 124). 조이스가 암시하는 것도 그곳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물리의 밀회를 논의하는 다음 장에서도 명백해진다.

2. 번식이 아닌 생식

위대한 작품의 반열에 우뚝 서 있는 『율리시스』를 통해 조이스는 ‘아내의 밀회’란 모티프에 사회적-역사적 연관 관계를 배제하면서 오로지 개인적인 일탈처럼 보이는 연출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대로 아내의 밀회가 ‘사회적 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회적 장치이다. 들뢰즈와 과타리의 문학 기계에도 “주체는 없고 오직 언표 행위의 집합적 배치만이 있다”(K 18). 아내의 성을 밀회라는 문제로 표면에 부상시킬 때 그것이 ‘사고’(accident)가 아닌 ‘사건’(event)으로 사회적 장에서 어떻게 변용되는지 살펴보자.

가족 삼각형에서 엄마는 삼각형의 한 각을 점유하고 있다. 엄마는 아들이 금지된 욕망인 근친상간을 원한다는 것을 자백하게 하고 아들의 거세에 명분을 주는 미끼로 이용된다. 이것은 정신 분석의 4번째 오류인 ‘전치’(displacement)로 “범이 욕망 내지 ‘본능들’의 차원에서 완전히 허구적인 어떤 것을 금지하고는 자신의 신민들이 이 허구에 대응되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득하”(AO 114-15)는 책략이다. 『율리시스』에서 몰리는 법으로 위장한 금지된 욕망에 걸려들게 할 아들이 없지만, 그녀의 ‘성’은 여전히 삼각형 안에서 재생산의 역할에 한정된다. 18장의 몰리의 ‘말해지지 않은 생각’은 이를 입증한다. 가족 삼각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생산’의 충실한 대리자인 스티븐 어머니와 몰리를 비교해보자.

스티븐 어머니(Mary Goulding)는 재생산을 위해 충실히 소비된다. 그녀는 지금껏 “15명의 아이를 낳았고 매년 출산을 한다”(U 8.31). 메어리는 가정 경제를 돌보는 것에 무능한 남편인 사이먼 때문에 고통을 겪은 후 병에 걸리고 변변한 유품도 남기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 스티븐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탓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지만, 스티븐이 조이스와 동일 인물이라면 사이먼의 경제적 무책임과 물리적 폭력은 스티븐 어머니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여성, 특히 아내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을 조이스는 적나라하지 않게 보여준다. 스티븐

어머니의 다산도 남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블룸이 피임기구를 갖고 다니는 것이나 출산의 고통에 동감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이먼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다. 사이먼은 또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다. 스티븐의 동생인 딜리(Dilly)는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스티븐의 책을 판다. 그런 것을 목격하고도 스티븐은 끝내 딜리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나누어주지 않는다. 장남으로서 스티븐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아버지의 “사본”(U 7.899)이 되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스티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삭(Isaac)의 장남인 에서(Esau)와 같은 “자신의 목소리에 지쳤고 [계승권을 포기하며] 자신의 왕국을 술 한잔과 기꺼이 바꾼다”(U 9.981).

스티븐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을 알면서도 가족 삼각형에서 탈주하려고 한다. 스티븐은 그 오래된 정서와 사투를 별인다(U 10.875-77). 그러나 스티븐의 어머니는 닫힌 삼각형에 갇혀 삶을 욕망하는 ‘욕망 기계’가 되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가톨릭교회와 단절한 아들을 회개시키려고 했다. 어머니는 스티븐을 아버지의 법에 승복하게 하는 가족 삼각형의 충실한 대리자이고 스티븐은 그것에 질식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스티븐이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이유이다. 스티븐은 교회의 대리자인 어머니의 공모자가 될 수 없었다. 스티븐에게 부권은 이미 허구였지만 이제 모성까지 허구가 되는 현실을 스티븐은 직시한다. 모든 사람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믿는 조건 없는 사랑,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단어는 “지금 어디에 있나?”(U 1.254). 스티븐이 그 단어와 만날 수 있을 때 스티븐은 가족 삼각형 안에 욕망적 생산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조이스가 스티븐 어머니의 다산에서 사본이 되어버린 전형적인 부르주아(Bourgeois) 여성을 본다면, 물리의 밀회를 통해서는 사회체의 표면을 뚫고 부상하는 시물라크라를 본다. 물리의 밀회는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생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능한다. 삶을 긴 선에 비유한다면 물리는 메어리와 반대 극에서 있다. 스티븐의 어머니가 경직된 ‘선분선’(segmentary line) 위에 있다면 물리는 유연한 ‘분자선’(molecular line) 위에서 자신의 욕망을 ‘탈주선’(line of flight)까지 밀고

나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로 몰리는 아들이 없지만, 아이를 더는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가족 삼각형에 변형을 가져온다. 두 번째로 몰리는 블룸이 경제적으로 무능할 때 직접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세 번째로 몰리는 딸을 훈육하는 일을 담당하지만, 딸에게 아버지의 법을 강제하는 대리자가 아니라 딸과 동등한 연대감을 형성한다(U 17.2289-91). 그리고 네 번째로 괄목할만한 것은 몰리는 남편에게 아침상을 받고 있으며 남편이 자신의 속옷을 세탁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몰리는 집안일을 책임지는 여성의 역할에서 명시적으로 벗어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탈코드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몰리가 ‘밀회’라는 의심받을 만한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당당하다는 것이다. 몰리는 연주회의 기획자인 보일런의 방문을 남편에게 태연하게 말한다. 18장에서 몰리는 이 밀회는 “블룸이 계획했다”(U 18.1008-09)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사실상 밀회이고 이것은 서로에게 주지된 사실인데도 몰리는 보일런의 방문을 숨기지 않는다.

몰리는 블룸이 원하는 “정숙한 아내”(U 12.1006)의 역할에 머물지 못하고 가족 삼각형 내부에 숨어 있어야 할 ‘성’인 “사소하고 불결한 비밀”(AO 49)을 18장에서 드러낸다.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로서 몰리는 마지막 장(18장)을 제외한 모든 장에서 보일런과의 만남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몰리의 목소리는 블룸에 의해 가려졌다. 몰리의 욕망은 밀회로 ‘전치’되고 그녀의 성은 가족 삼각형 안에 단단히 묶였다. ‘근친상간’처럼 전치된 ‘밀회’로 인해 몰리는 독자에게 정숙하지 못한 아내로 읽혔다. 그러나 재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몰리의 성은 블룸의 목소리가 없는 18장에서 마침내 그 비밀을 누설한다. 들뢰즈와 과타리에 의하면 성은 “생식에 봉사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생식이 무의식의 자기 생산으로서의 성에 봉사한다”(AO 108). 즉 재생산의 유일한 주체는 무의식이 지 생식을 통한 재생산의 대상이 되는 기관화된 신체가 아니다(AO 108). 성은 이분화된 남녀의 성적 관계만이 아니라 ‘욕망적 생산’으로 무의식의 생산을 본성으로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성이 밀회로 ‘전

치'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내의 삶이 정지된 것과 다르지 않다. 성은 번식으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순환형식을 고수하는 무의식”(AO 108)으로 “욕망이 삶을 욕망하”(AO 8)는 것과 같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성을 번식을 위한 생식에 국한하지 않고 차이를 생산하는 무의식에 연결한다. 밀회로 전치되어 금지된 욕망이 되어버린 아내의 성은 개인의 가정사로 국한될 수 없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거기에서 작동하는 억압이란 책략을 본다.

아내의 밀회란 모티프를 통해 블룸과 몰리가 보여주는 ‘성적 행위’는 가부장제의 규범에 호응하지 않는다. 블룸과 몰리가 규범에서 벗어난 자신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인내를 보여주는 근거와 그것이 무엇을 발생하게 하는지 살펴보자. 블룸은 온종일 몰리와 보일런의 밀회 시간에 붙잡혀 있지만, 그는 또한 몰리와 사랑을 나누던 시간에 불현듯, 아무런 예고 없이 노출된다. 개들의 교미에 자극받아 그 결과로 루디가 잉태되던 날, 그리고 그 이전에 호-쓰 언덕(Ben Howth)에서 몰리에게 청혼하던 날을 자주 떠올린다. 그때 블룸과 몰리의 ‘성적 관계’는 번식과 무관한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성적 관계’가 있었다. 이들에게 성적 관계는 번식이 아니라 고아인 무의식이 되는 사건이었다. 블룸은 삼각형의 틀을 진동시키며 서로의 감각에 공명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내몰렸다. 블룸과 몰리는 탈코드화된 흐름에 자신들을 내맡기었다. 블룸과 몰리는 자유의지가 아닌 사랑이란 부동의 모터를 자기 원인으로 가지는 무의식의 흐름, 바로 그 위에 있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으로 여정을 떠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쌓지만 언제나 결국에 우리 자신과 만나듯이”(U 9.1044-46) 블룸과 몰리는 다시 만나고 있다. 생산의 부동의 모터는 신(God)도 아버지의 법도 아니며 ‘자기 자신이 자기 원인’이 되는 사랑이다. 블룸과 몰리는 그때 그들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곳으로 던져졌다. 자유의지가 아닌 자유, 그 기표 자체와 아무런 매개 없이 조우했다.

블룸은 몰리를 온종일 의심하지만, 그가 현실화되지 않은 시간에 소환

되면서 물리를 비난하지 못한다. 무의식의 시간이 의식의 시간 속으로 투
 자되면서 블룸은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있는 자신을 내부로부터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표면적인 유기체 밑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전
 이적인 기관들도 엄밀히 말해 고정된 기관들의 구성 밑에서 느껴진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관 없는 신체와 전이적인 기관들은 그 자체가 내
 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자기 모습을 보는 착각”으로 알려진 현상 속에
 서 보일 것이다. 즉 이진 더는 나의 머리가 아니고, 나는 나를 어떤 머
 릿속에서 느끼고, 나는 나를 어떤 머릿속에서 본다. 혹은 나는 나를 거
 울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신체 속에서 나를
 느끼고, 나는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 벗은 신체 속에서 나를 본다
 (FB 49)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물적(molar) 기관이 와해 되고 부분대상으로 돌아
 간 ‘욕망 기계’는 고장 난 상태에서 다시 생산을 시작한다. 물리의 밀회는
 기관화된 신체에 새겨진 ‘사고’일 뿐 ‘기관 없는 신체’는 물리의 밀회를 모
 른다.

스티븐과 블룸의 만남이 부권회복으로 귀결되지 않듯이 아내의 밀회
 또한 규범적 질서 안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규범적 질서 안에서
 아내의 밀회는 비난의 대상이다. 『더블린 사람들』(Dubliners)들의 「참혹한
 사건」(“A Painful Case”)에서 시니코 부인(Mrs. Sinico)은 죽음으로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U 6.997). 파넬(Charles Parnell)의 연인이었던 키티
 (Kitty OShea)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사생활이 날날이 공개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U 16.1372-77). 블룸도 물
 리와의 이혼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U 17.2202). 대신
 블룸의 의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들어선다. 블룸은 15장의
 환상 속에서 물리에게 용서를 빌던 그 층위로 돌아간다. 블룸은 잠재적 미
 세 지각이 분화되기 이전의 층위에서 갑작스럽게 물리에게 “용서해달
 라”(U 15.3151)고 외쳤다.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것인지는 말할 수는 없지

만, 그 순간은 의식의 활동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와 공명을 이루는 순간이고 실존의 원인이 되는 순간이다. ‘기관 없는 신체’에는 다양한 파장과 파동이 주파하며 외적인 힘과 만나 ‘감각’(sensation)이 발생하는 데 이 힘들은 신경 시스템에 직접 행사되는 ‘잠들지 않은 몽유병’처럼 잠정적이(FB 47-49)기 때문이다. 물리를 향한 블룸의 “용서해달라”는 단말마적 외침은 따라서 블룸의 무의식, 시물라크라가 부상하는 순간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실존에 덧붙이며 도래할 미래를 구성한다.

블룸에게 아내의 밀회는 “자연의 피조물로서 ... 자연스럽고, ... 지구의 멸망처럼 재앙적이지도 않고. ... [끝도 없이 나열되는 범죄들만큼]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 그렇게 비정상적이지도 않고. ...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일”(U 17.2178-94)이다. 블룸의 이런 평정심은 블룸이 과거의 시간을 소환하면서 그것을 15장에서 즉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감각하지(느끼지) 못했다면 현실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블룸은 자신의 아내를 취하는 남자들을 살해하면서 영웅이 되는 오디세우스(Odysseus)를 모방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한다. 하루의 비용을 페니(penny)까지 기록하고 계산을 마무리하는 블룸은 영웅이기보다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저런”(Deleuze, WP 171) 소시민이다. 그런데도 블룸이 어떤 남편도 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가 ‘그것’과 조우하는 순간에 물(water)과 같은 유동성으로 변용되기 때문이다. 블룸은 영웅은 아니지만 그렇게 “‘거인’(giant)이 된다”(WP 171). 조이스는 더는 ‘영웅’에 현혹되지 않고 평범한 소시민이 거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이스는 평범한 시민이 영웅의 요건을 드러내면서 결국, 거인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자’가 거인으로 창조되는 순간을 포착한다.

3. 동일성이 아닌 차이의 반복

조이스에 의하면 18장이 아닌 17장이 『율리시스』의 결말이다. 그렇다

면 『율리시스』는 다음과 같이 끝난다. 블룸은 아내의 밀회를 더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며(U 17.2178-94) 예전처럼 몰리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청한다. 여전히 부부 관계의 회복을 암시하지 않는 자세로 누워있지만(U 17.2302-05) 블룸과 몰리의 결혼 관계는 파국을 맞지 않은 채 봉합된다. 라모스(Colleen Lamos)는 15장의 탈주선이 몰리가 17장에서 대지의 여신이 되면서 가족 삼각형이 복원되는 것으로 본다(547). 그 밖에 동일성의 반복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18장에서 몰리가 재현한 청혼과 블룸이 몰리에게 요구했다는 아침상이다. 탈영토회의 실패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런 비평은 아직도 이들에게 혁명은 이전의 것을 전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읽히며, 블룸이 말하는 혁명적 힘이 분할식으로(U 16.1101) 분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사유에는 못 미친다. 블룸의 ‘혁명은 분할식’이기 때문에 서서히 그러나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것의 반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미세 지각들은 ‘물적 구조’에 균열을 내는 운동을 멈추지 않는다. 블룸이 말하는 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며 영원히 반복된다.

조이스가 18장을 덧붙이지 않고 17장을 끝으로 작품을 마무리했다면 그것은 소수자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된 결말이다. 남편의 서사(다수자)로 문제는 봉합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일성의 반복이고 도래할 미래는 없다는 비판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조이스에게 18장은 어떤 문학 기계인지 생각해보자. 조이스는 17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했으면서 블룸의 목소리가 배제된 18장을 덧붙인다. 그것도 온전한 몰리의 시간으로 채운다. 독자는 이제 몰리의 시간을 통해 가부장적 담론이 아닌 그 이면의 소리를 듣는다. 17장의 교리 문답을 통해 아내의 밀회는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이 가져오는 상호 균형”(U 17.2191-92)의 흐름으로 배치되었다면, 18장은 아버지의 법이 없는 혼돈상태로 ‘비정상적’ 배치의 장으로 변형된다. 여성이 목소리를 내는 18장은 삼각형의 틀 안에 은폐된 보이지 않는 것과 조우하는 순간의 시간이다. 따라서 블룸이 18장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블룸은 역사란 악몽에서 깨어날 수 없다.

15장에서 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마침내 시작된 블룸의 “여성 되기”(becoming-woman)는 18장에서 몰리와와의 결연을 통해 현실화된다. 여성 되기는 ‘생물학적 여성’이 되는 것도 ‘성 역할’을 떠맡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또한 남성적 지배 담론을 전복해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지배 담론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여성 되기는 남성과 여성이란 두 성으로 이루어진 배타적 지배 담론에서 탈주하여 새로운 길을 만든다. 물론 여성이라는 그 지시적 의미를 거세하지 않으면서 이분화된 성과 무관한 소수자가 되는 ‘여성 되기’이다. 들뢰즈는 우리의 존재를 실증하는 현상계를 전복하는 혁명을 이상화하지 않는다. 조이스도 내세의 삶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 (Power 49). 따라서 혁명은 ‘유토피아’(utopia)가 아니며 지금 여기에서 ‘분할식’으로 진행된다. ‘여성 되기’는 여성이란 이름이 내포하는 부정적 현실, 즉 이미 현실화된 것이 아닌 여성이란 이름 아래 은폐된 사건을 드러낸다. 몰리의 ‘예스’(yes)로 둘러싸인(U 18.1, 1609) 18장은 블룸이 여성 되기를 통과하는 인증과 같은 곳이며 그곳에서 남녀 공히 “n개의 성”(AO 296)에서 다시 시작한다. 블룸은 물리적 죽음을 겪지 않고도 부활하는 다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조이스가 17장을 사실상의 결말이라고 말하고 18장을 덧붙이는 이유는 그곳이 지배 담론에서 탈주하는 ‘소수자 되기’의 영역이고 영원히 도래할 미래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8장은 ‘예스’로 열리는 몰리의 인증이다. 모든 것을 망각해야 다시 모험을 떠나는 신바드(Sinbad)처럼 17장에서 다킨바드(Darkinbad)가 된 블룸도 몰리의 밀회를 망각해야 “밝은 날의 사람”(Brightdayler)(U 17.2330)으로 아침을 맞을 수 있다. 블룸은 삼각형이 와해된 18장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에 몰리의 인증”(LI 160)을 받았다. 몰리의 인증은 블룸에게 새로운 ‘의미의 창조’이다. 몰리가 블룸의 여권에 인증하는 것은 가부장제의 더블린이 아니라 조이스가 “벼리려 하는 새 양심”(P 343)이 있는 더블린에 초대되는 인증이다. 그렇다면 도래할 미래는 몰리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다. 몰리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몰리는 결혼반지를 빼고 블룸을 떠날 생각도 한다. 몰리에게 결혼 계

약은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또한 스티븐의 연인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
 (U 18.1349-66)고 “양배추와 ‘시’를 구분할 줄 모르는”(U 18.1370-71) 보일
 런에게 자신이 소비되고 있는 것도 안다. 몰리는 보일런과의 관계 후에 기
 분 좋게 잠이 들었지만, 천둥 번개에 잠이 깬 후 자신이 벌을 받는다고 생
 각한 적이 있다(U 18.131-39). 보일런은 몰리의 결혼 상대자가 될 수 없다
 (U 18.412). 그 이유는 보일런은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반면에 블룸은
 “여성의 본성을 이해하고 느낀다”(U 18.1578-79). 몰리는 연애편지를 잘
 쓰는 블룸을 좋아한다. “연애편지에는 진실이 있고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준다”(U 18.737-39). 스티븐의 예술적 기질은 몰리에게 보이지 않던
 블룸의 이면을 사유하도록 강제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몰리는 호-쓰
 언덕에서 16년 전의 청혼을 재현하며 무한한 긍정의 대답을 한다. 16년 전
 에 ‘그래’라고 했고(U 18.1608) 16년이 지난 지금 1904년에 또 “‘그래’라고
 할”(I will Yes)(U 18.1608-09) 것이다. 블룸이 ‘밝은 날의 사람’으로 깨어나
 는 것에 다시 한번 인증하는 도래할 미래에 대한 긍정이다. 15장에서 몰리
 에게 “용서해달라”는 외침, 17장에서 아내의 밀회에 대한 블룸의 평정심
 은 몰리에게 환대를 받는 블룸의 역량이다.

몰리는 블룸에게서 ‘그것’을 식별해 내었다. 다시 말하면 블룸과 몰리
 는 다시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언제나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포착해내고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그를 가려낸다는 것, 그
 것이 아무라 작은 집단이더라도 가족이든 다른 뭐든 간에, 나아가 그
 사람에게 고유한 무리를 찾아내고 그가 자기 안에 거두어놓고 있는 아
 마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졌을 그의 다양체들을 찾아낸다는 것. (TP
 35)

호-쓰 언덕의 재현은 삼각형을 완성하는 결혼이 아니라 삼각형에서 탈
 주한 본성과 조우하는 차이의 반복이다. 몰리의 ‘그래’는 가족 삼각형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속에 차이를 들여놓는다.

누군가 사랑을 할 때는 정말로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은 혼자서 그리고 다른 한 사람과 또는 사람들과 기관 없는 신체를 이룬다. ... 무의식의 문제는 생식과는 무관하며 차라리 서식, 개체군과 관련이 있다. ... 유기적 가족 생식은 아니다. (TP 30)

생물학적으로 명명된 남성과 여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각각의 성들을 그것에게 돌려주는 것”(AO 296), 그것이 블룸과 몰리의 결혼이다. 그렇다면 블룸과 스티븐도 이미 결혼했다고 볼 수 있다. 16장에서 스티븐은 블룸의 집으로 가기 전에 주점을 나선 후 낮은 소리로 “결혼하러”(U 16.1887) 간다는 노랫말을 흥얼거린다. 블룸과 스티븐이 결혼하고 몰리가 스티븐의 연인이 되고 다시 몰리와 블룸이 청혼이 재현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랑’의 현실화이고 영원히 반복되는 차이의 생성이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짚고 갈 것은 블룸이 아침에 달걀을 먹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진위이다. 블룸이 몰리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달라고 했다고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동일성의 반복이다. 문맥을 살펴보자. 17장에서 블룸은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바다오리의 달걀을 발견했다. 18장에서 몰리는 블룸이 아침으로 달걀을 먹겠다고 말했다고 생각한다(U 18.1-2). 몰리는 블룸이 아침상을 받은 마지막 때를 기억한다. 블룸은 시티 암즈(City Arms) 호텔에 살던(U 17.482-84) 그때 이후로 “아침상을 요구하지 않았다”(U 18.1-2). 그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몰리는 블룸에게 그때 이후로 아침상을 차려주지 않았고 블룸과 몰리는 그렇게 가부장적 질서에서 이미 탈코드화되었다. 몰리는 루디가 죽은 그때를 원한 없이 회고할 뿐 아침상을 차려야 하는 관습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오히려 블룸이 몰리와 스티븐을 위해 아침상을 차릴 것이다(U 18.1491-92).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은 아침상을 누가 차리느냐가 아니라 아침상이 사랑의 기호로 변용되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다. 조이스가 심어놓은 또 다른 수수께끼에 골몰해야 한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율리시스』를 의식의 세계가 아닌 시물라크라의 층위로 접근해가면서 전통적 해석에 대한 반대 논증을 했다. 그것은 부권의 회복, 아내의 성, 그리고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것과 단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이스가 『율리시스』에 심어놓은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린다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비평도 오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제 겨우 일 백 년이 지났을 뿐이다. 아직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삶과 문학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은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을 반복해서 읽는 독자들이 스스로 차이를 만드는 삶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독자는 조이스에 의해 강제된 사유 속에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해석하면서 불현듯 시물라크라와 조우할 것이다.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 독자의 의식의 표면을 뚫고 발산하는 순간이다. 그때 독자는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며 인식의 지평이 확장된다.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은 잠재적인 것과의 조우를 통해서 현실화된다. 들뢰즈의 표현을 빌리면 그때 무규정(혼돈)의 세계 안에 ‘무한히 갈라지는 오솔길’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탈주해야 할 대상인 초월자나 이데아, 혹은 아버지의 법을 『율리시스』 안으로 투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오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니체(Friedrich Nietzsche)를 인용하는 들뢰즈와 고틀리의 말처럼 ‘아버지 담론’에 더는 소진되지 말아야 한다. 『율리시스』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심이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죽음’을 믿는 들뢰즈와 고틀리, 그리고 아버지를 믿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스티븐은 ‘저 높은 곳’도 그리고 ‘나중’도 아닌 ‘지금 여기’에서 ‘거리의 외침’과 만난다.

(충남대)

인용문헌

- 김종건. 『제임스 조이스 전집』. 1권, 어문학사, 2013.
- 데이비드 노만 로도윅. 『질 들뢰즈의 시간기계』. 김지훈 역, 그린비, 2005.
-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2008.
- . 『비평과 진단: 문학, 삶 그리고 철학』. 김현수 역, 인간사랑, 2001.
- .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 .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주름』. 이찬웅 역, 문학과 지성사, 2004.
- 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김재인 역, 민음사, 2014.
- .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이진경 역, 동문선, 2001.
- . 『천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 Deleuze, Gilles. Preface to the French Edition. *Essays Critical and Clinical*.
Translated by Daniel W. Smith and Michael A. Greco,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pp. lv-lvi.
- . *The Fold: Leibniz and the Baroque*. Translated by Tom Conley, The
Athlon Press, 1993.
- . *Francis Bacon: The sense of Sensation*. Translated by Daniel W. Smith,
Continuum, 2003.
- . “The Simulacrum and Ancient Philosophy.” *The Logic of Sense*, edited by
Constantin V. Boundas. Translated by Mark Lester and Charles Stival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p. 253-265.
- . *What is Philosophy?*. Translated by Hugh Tomlinson and Graham
Burchell,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lated by Robert Hurley, et al,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 . *Kafka: Toward a Minor Literature*. Translated by Dana Pola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 . *A Thousand Plateau: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lated by Brian Massumi,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Gifford, Don, and Robert J Sie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2n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Joyce, James. *Dubliners*. Collins Classics, 2011.
- . *A Portrait of Artist as a Young Man*. Shina-sa, 1977.
- .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ited by Stuart Gilbert, Viking, 1966.
- .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Vintage Books, 1986.
- Lamos, Colleen, "Anti-Oedipal Joyce." *Images of Joyce*, Vol. II, edited by Clive Hart, et al., Colin Smythe, 1998, pp. 544-547.
- Power, Arthur.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edited by Clive Hart, Millington, 1974.

Abstract

Simulacra in *Ulysses*

Misun Kang

This article aims to reverse the conventional readings of the themes in *Ulysses*. It is approached through the philosophical views of Deleuze. The main concept of the simulacrum,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explored through inverted Platonism. Simulacrum as viewed by Deleuze is seen as an affirmative life force. It is argued that the three main characters in *Ulysses* encounter simulacra and are born again with a new perspective of life. It can be said that neither Stephen, nor Bloom is in pursuit of a spiritual father or a substitute son. Instead, they are in the process of breaking away from the family bondage. The long-awaited meeting of the two does not, consequently, result in a family triangle. In Deleuzian terms they are ‘desiring machines’ who resemble ‘the body without organs.’ Molly is also not confined to the supposed role of a chaste wife. As her sexuality is not merely for the purpose of reproduction, it has taken flight with many ‘yesses’ which empower her to say ‘yes’ to Bloom’s proposal. Their marriage is not intended to restore the ‘family romance,’ but to repeat ‘love’ lost in the patriarchal institution.

■ **Key words**: conventional readings, *Ulysses*, simulacra, family triangle, desiring machine, sexuality, love
(전통적 해석, 율리시스, 시뮬라크라, 가족 삼각형, 욕망 기계, 성, 사랑)

논문접수: 2020년 12월 4일

논문심사: 2020년 12월 15일

게재확정: 2020년 12월 21일